

고 통

1162. 제게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고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깊은 순교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교회의 순교가 제 것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 오면 즉시 그것을 교황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교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통은 깊고 친밀하며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려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채 그냥 하느님의 손에 맡겨 놓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도록 말이지요. 그대도 이렇게하기를 원하십니까?

1163. 향나무 우거진 산, 그림자들 사이, 스승께서

양 팔을 벌리신 그곳이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혼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빈 십자가!... 그곳이 영혼의 위대한 축제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가엾은 영혼은 순결한 사랑에 흠뻑 취한 채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1164. 오직 사랑만이 골고타를 올라 갈 줄 압니다. 오직 사랑만이 구원합니다.

1165. 십자가로 값을 치렀고 십자가로 구원되고 십자가로 새로 태어나고, 십자가로 인호가 새겨진 이여! 그 십자가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1166. 십자가 아래서 모든 열등의식이 무너지고 모든 비참함이 정화되며, 나날의 싸움을 위한 힘을 얻

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영혼은 믿음, 희망 사랑의 대신 덕의 물줄기를 받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랑합니다.

1167. 사랑에 빠진 영혼에게 십자가는 위안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1168. 사랑의 신비로운 종살이는 십자가 안에 그 심오한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대 스승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사랑에 빠진 종살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169. 오, 그토록 오랫동안 열망해 오던 사랑스런 십자가여! 너의 그 메마른 나무에 다가 설 때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죽기까지 너를 끌어안고
너와 함께 죽게 되기를 바라노라.

1170. 그들은 이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발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였으며 그들의 손에는 생명과 죽음, 무능과 권능의 십자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대의 신비요, 그대 사랑의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너무도 강하게 드리워져 있기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171. 골고타를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영혼 안에는 정상에의 목마름, 비움으로 얻어지는 사랑의 절규, 순수한 포기과 참된 고통에의 목마름만이 남게 됩니다. 참 행복을 주리

고 목말라 하는 이 영혼, 부서진 그리스도를 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 영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72.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주셨습니다.”(요한 3,16)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십자가의 한 뿔을 그대에게 주셨습니다.

1173. 십자가로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아름답고, 든든하고, 교회를 위해 풍요로움 삶입니다.

1174. 언제쯤이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 전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수천 번 기워진 가난한 우리 삶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나무

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나무는 얼마나 좋은지요!

1175.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싶습니다.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1176. 그분의 십자가가 그대의 비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대의 무능력과 그대의 허무를 부드럽게 인정하면서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 분께서 당신의 "이제 다 이루었도다."(요한 19,30)를 그대 안에서 실현하실 것입니다.

1177. 예수님! 당신처럼 되기 전에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하느님, 저

의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충분하다고 말 해 버리는지요!

제가 알아 듣지 못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만날 때 너무도 조금 밖에 당신을 닮지 못한 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투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1178. 하느님... 하느님... 그 십자가의 신비에 제 삶을 못박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박힘! 사랑의 생생한 표현. 여기에서 모든 심연이 만납니다. 허무와 전부의 심연이!

1179. 십자가 안에 사는 것... 그 거룩한 나무에 기대면 모든 것이 신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색조를 띠게 됩니다. 거기서 영혼들이 굳세게 닦여지고, 성령께서 커다란 잔치를 벌이시며, 하느님과 영혼이 만나 결정적인 혼약을 맺습니다.

1180. 십자가의 논리에는 철저한 요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논리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십시오.

1181. 온 우주의 비밀이 이 신비스런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이 신비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갑시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 십자가로, 갈바리오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이 신비를 통해, 그대 영혼의 마지막 구석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1182. 주님,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당신 십자가의 고통에서 도망치려 했던 때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당신처럼, 십자나무를 꼭 끌어안고 결코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렵니다. 당신처럼 말이지요. 때로 제가 위로를 찾으려 하는 것을 보신대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항상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1183. 물론 십자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1184.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사랑은 십자가와 고통의 신비를 열렬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신비에서 도망 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자!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고통과 사랑의 모험에 두려움 없이 뛰어 드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힘, 그대의 에너지, 그대의 사랑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대

의 눈동자에서, 그대의 손길에서, 그대 삶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는 더 많
은 사랑을 통교하고, 더 많은 사랑의 삶을 내어 주
는 것입니다

1185.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 분께 수난의
날과 시간들은 끝없는 바다만큼이나 길고도 고통스
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지극한 번민과
목마름, 고독함..., 저 신비스러운 어둠과 고뇌의 시
간들, 저 흑독하고도 고통스런 번뇌의 시간들...!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느낌들은 바로 이런 것이
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느낌들! 그리고
고통과 수난과 죽음으로 가득 찬 저 끝없이 길고도
영원한 시간들처럼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다시
없습니다.

1186.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 하느님, 평온한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지극한 고통으로 부서진 당

신의 몸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그 깊은 신비를 그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1187. 성소에 대한 사랑은 고통과 시험의 도가니를 거쳐야 합니다. 사랑이 시험을 거치면 구속의 힘이 있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술틀에서 포도를 짜듯이 우리의 삶을 비틀어 짜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삶이 달콤하고 농도 짙은, 잘 익은 포도주가 될 때, 비로서 하느님의 입술을 흥겹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188. 천사들이“그 고통”을 거두어, 향기로운 향처럼 하느님 대전에 바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가장 달콤하게 미소 짓게 하는 것입니다.

1189. 우리가 고통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날,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될까요!

1190. 그분의 열려진 옆구리에는 깊은 동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대의 발을 들여놓고, 전진하십시오! 동굴 내부에까지 도달하십시오. 점점 더 안으로... 더욱 깊숙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밀림은 고통의 신비이고, 드러나지 않는 정화의 신비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될 때까지 점점 더 깊숙이 그 안으로 전진하십시오.

1191. 그 분께서 그대를 이끄시어 당신 마음에 드시는 길로 인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찬미의 길, 아마 고통의 길이 될지도...

신비스러운 그 고통의 길을 절대로 물리치지 마

십시오. 그 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본질의 감미로운 물을 그대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대가 절대적인 것으로... 영원으로... 하느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192. 우리는 고통을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1193. 노래하며 인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하여 그대의 고통이 노래로 바뀌고 하느님께서 미소 짓게 되신다면요. 영원하신 그분의 뜻 앞에 그대가 미소 지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1194. 하느님의 계획은 명백합니다. 그대의 무능과 가난, 연약함과 허무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사랑하세요.

1195. 질병으로 인해 서약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혼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님께 노래 불러 드릴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정열을 다해 온 생을 바쳐 응답해도 아깝지 않을, 우리를 위해 당신 생명을 바치신 하느님의 사랑...!

질병, 건강,... 가능성 아니면 무능력...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일 진대 이런 것들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만일 그 분께서 그대의 무능 안에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대는 기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진 영혼으로,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노래해야만 합니다.

1196. 피를 흘릴 줄 알기 위해 겟세마니와 골고타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활동을 위한 커다란 힘이 있고, 거기서 투쟁과 마지막 승리를 위한 힘이 나옵니다.

1197.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만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고통은 복되도다, 고통은 영광 받을지어다, 고통은 찬미 받을지어다!"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수난에 깊이

잠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가 되는 것, 이 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1198. 신비 중의 신비는 피조물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서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육화된 고통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랑, 하느님 사랑의 시험을 거친 진지하고 강한 사랑입니다.

1199. 만일 고통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하나되고 일치된다면 한가지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고통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말고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1200. 스승님과 함께 걷는 이 고통의 킬로미터들은 저 신비롭고도 영원한 혼인잔치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다듬어 주는지요! 그 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대의 고통을 원합니다.

1201. 비록 그 잔이 쓰디쓰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시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베대오의 아들들처럼 그분의 쓴 잔을 끝까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결국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욥기 33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다행한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1202. 비록 그대가 고통으로 부서져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미소 짓는 것은 안개 낀 날의 햇살이 아름다운 것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1203. 축축한 진흙 밭고랑은 우리 인간 감각에 그리 매력적인 것이 못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거기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먼지를 삼키고 모래알을 씹는 일은, 혹독하고,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시키고 신화 시키며 일치시킵니다. 이는 일치의 신비이자 신비 그 자체입니다.

1204. 아프리카! 참으로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가 그대의 밑알이 아프리카

땅의 고랑에 떨어져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거기 묻혀 있는지! 얼마나 큰 신비가! 헤아릴 수 없는 성덕의 비밀들이 거기 묻혀있습니다.

힘들다고요? 오, 시간은 너무나 짧고 영원은 너무나 영원하고 하느님은 너무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허무가 이 초자연적인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신비는 어떤 신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목숨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불 같은 힘으로 우리 위에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신비들을 잘 이용합시다.

하느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하느님... 하느님! 당신의 비밀들을 제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 원하

시는 것을 청하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한 12, 24).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산채로 죽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신비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합시다.

1205. 겻세마니의 맛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겻세마니에 어떤 맛이 깃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싸움터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복된 죽음이여! 이 죽음은 땅을 뒤흔들고 그때마다 온 땅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신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죽어가며 인

생을 사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1206. 교회는 한 알의 밀알이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는 고랑으로 용감하게 떨어질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 죽음이 강할수록 더 큰 반향을 인류 안에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207. 관상자는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자신의 밀알을 하느님의 경작지에 던져야만 합니다. 거기서, 오직 죽음으로서만 맺어지는,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잊혀진 밀알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1208. 십자가에 대한 갈망은 매 순간 겪게 되는 작은 역경들에 대한 사랑을 유발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큰 역경들을 만나는 커다란 행운이

주어진다면 넘치는 기쁨을 자아내야 합니다.

고독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이탈과 오해,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들을 사랑스러운 복종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건전한 기쁨과 자연스러운 포기, 우리 안에 열등감을 조성하는 일 없이 그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